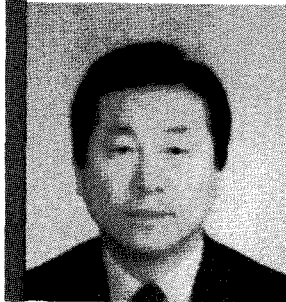


回顧와 展望

漁港開發사업

91년까지 全漁港基本施設 完成 목표



趙 洪 濟 <수산청施設局漁港課長>

I. 서 론

'88년도 어항개발사업은 시설사업과 조사사업을 병행 추진하였다. 특히 금년에는 서울올림픽개최와 관련하여 화약 등 폭발물사용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석재등 주요자재의 조기확보에 만전을 기하였고, 공사촉진에 최선을

을 다한 결과 대부분의 공사가 당초계획보다 공기를 앞당겨 준공되었다.

또한 매년 7~8월에 집중적으로 내습, 시공중인 어항시설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던 태풍이 42년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써 오랫동안 피해 없는 어항공사를 추진한 한 해였다.

II. 사업별 추진현황

1. 수축사업

수축사업은 투자방향을 어선의 안전수용을 위한 외곽시설 완공추진에 두고, 총 453억원 사업비로 방파제 등 4,862m를 시설하였고 전남의 마량항 등 10개항에 대한 시설보강사업을 추진하였다.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2종 어항에는 60억원의 사업비로 65개항에 대한 시설과 보강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1·3종 어항의 항별 시설내용을 보면 해역별 거점어항인 소흑산도항에는 49억8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피해복구 잔량 45m의 복구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복구공사가 완료되면 지난 '86년도 태풍 "베라"호 내습으로 인한 방파제 피해 등 피해시설물의 복구공사가 마무리된다.

금년도 소흑산도항 복구공사는 과거 경험에 비추어 태풍내습기인 7~8월에는 공사가 순조롭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시공중 선단부를 설치하는 등 태풍내습에 대비하였으나, 이러한 시설물이 필요없게 됨으로서 결과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었던 공기(工期)가 다소 지연되었다.

양포항은 33억 9천 3백만 원으로 방파제 시설을 완성하였고 물양장과 방사제등도 시설하였다.

안흥항은 27억7천6백만원을 들여 동방파제를 완성하고 서방파제 50m를 축조하였다.

한편 일반 어항에는 2백52억원을 투자하여 강원도의 사천진항과 경상남도의 대변항을 완공하였으며, 전라북도의 연도항 방파제 시설을 완성하였다.

주요항별 시설내용을 보면 강원도의 사천진항에는 15억8천9백만원

으로 방파제등 잔여시설을 완성, 사천진항을 완공함으로써 이 항을 근거지로 조업하는 어선들의 안전조업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 ●
**어항시설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던
태풍이
42년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써
오랫만에
피해없는 어항공사를
추진한
한 해였다.**
● ●

야야진항과 대진항에는 각각 8억9천8백만원과 9억8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및 물양장을 축조하였다. 특히 대진항은 시설확충을 위하여 북방파제 88m를 축조하였으며, 어선 입출항에 지장을 주던 수중암을 제거하였다.

경상북도의 현포항은 13억5천6백만원으로 계속 시공중인 방파제 53m를 축조하였고, 사동항에는 7억6천3백만원을 투입하여 방파제

88m를 축조했다.

경상남도의 능포항은 17억9천4백만원으로 동·서방파제 153m와 물양장 370m를 축조하였다.

또한 정자항과 방어진항에는 각각 9억7천5백만원과 13억2천5백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정자항은 방파제와 물양장을, 방어진항은 방파제를 축조하였다.

전라남도의 소안항에는 10억4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서방파제 90m와 물양장 등을 축조하였으며, '86년도 항중 조정항인 안마항과 서방항은 11억4천7백만원과 10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132m와 72m를 각각 축조하였다.

전라북도 연도항에는 13억4천9백만원을 들여 북방파제를 완성하고 항중 조정항인 격포항은 12억4천4백만원으로 방파제 130m를 축조하였다.

제주의 신양항은 16억7천8백만 원을 투자하여 남방파제와 물양장을 축조하고 수중암을 제거하여 어선의 입출항을 원활히 하였으며, '89년도에는 잔여시설을 축조하여 완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태풍진로권에 위치한 모슬포항에는 22억5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방파제와 물양장을 축조하

표. 어 항 개 발 현 황

| | | 총계획 | '87까지 | '88추진 | '89이후 | '87까지 대비(%) |
|------|-------|----------|---------|-------|--------|-------------|
| 계 | 투자/완공 | 386개항 | 111 | 90/13 | 262 | 61 |
| | 물량 | 163,879m | 100,234 | 4,862 | 58,777 | |
| | 금액 | 5,130억원 | 2,264 | 453 | 2,413 | |
| 1·3종 | 투자/완공 | 61개항 | 26 | 25/ 3 | 32 | 58.8 |
| | 물량 | 65,829m | 38,714 | 3,536 | 23,579 | |
| | 금액 | 3,893억원 | 1,929 | 393 | 1,571 | |
| 2종 | 투자/완공 | 325개항 | 85 | 65/10 | 230 | 62.7 |
| | 물량 | 98,050m | 61,520 | 1,332 | 35,198 | |
| | 금액 | 1,237억원 | 335 | 60 | 842 | |

였으며, 태풍내습에 대비하여 기존의 방파제 일부 구간을 보강하고 임준실도 추진하였다.

항중 조정으로 '87년도부터 본격 개발에 착수한 위미항은 10억5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및 물양장을 축조하였다.

한편 시·도지사 관리항인 2종 어항에는 65개항에 60억원을 투자하여 방파제등 1,332m를 축조하였다.

2. 보수·보강사업

어항시설의 기능제고와 노후, 취락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은 25억원의 사업비로 전라남도 녹동항과 마량항의 시설을 보강하였고 경상남도의 맥전포, 신수, 대변, 육지 미조항 등 5개항에 대해서는 시설보강과 피해복구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경상북도의 읍천항, 제주도의 도두, 애월항의 시설물에 대한 보강사업도 추진하였다.

3. 어항조사사업

태·폭풍으로 인한 어항피해의 최소화와 합리적인 어항개발을 위하여 추진중인 어항조사사업은 4억7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기본조사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다.

어항의 규모와 소요시설 배치 및 안전단면 결정을 위한 기본조사는 미실시항인 전라남도의 국동항 등 3개항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구조물의 안전도 및 침하율 검토를 위한 지질조사는 전라북도의 격포항등 8개항에 대하여 실시했다.

내습에 대한 구조물의 내구력 및 항내정온도, 평면배치 계획 검토를 위한 수리모형실험은 강원도 대진항과 경상북도 현포항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태풍 최소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항의 천해파추정

대상항 59개항중 '87년도에 27개항을 실시한데 이어 금년도에는 경상남도의 대변항 등 32개항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시설물의 안전도 진단은 대상항 54개항중 미실시항인 충청남도의 안흥항 등 34개항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III. '89년도 어항개발

'89년도 1·3종 어항개발은 전년 대비 115%증액 4백62억7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28개항에 대한 수축사업을 추진하여 방파제 등 5,332m를 축조하고 양포, 신양, 연도,

아야진, 능포항 등 5개 항을 완공하여 어선들의 안전조업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어항기능 제고를 위하여 일부 어항의 노후, 취락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89예산이 확정되면 곧바로 투자대상항에 대한 항별 세부·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조기에 착수하여 태풍기 이전에 주요 공정완성은 물론 조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시·도지사 관리항인 2종 어항은 국비지원 등 74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방파제등 1,445m를 시설할 계획이다.

표. '89 어항개발계획

(단위: m, 백만원)

| | 투자항수 | 물량 | 사업비 | | |
|------|------|-------|--------|--------|-------|
| | | | 계 | 국비 | 지방비 |
| 계 | 93 | 6,777 | 53,706 | 49,991 | 3,715 |
| 1·3종 | 28 | 5,332 | 46,276 | 46,276 | - |
| 2종 | 65 | 1,445 | 7,430 | 3,715 | 3,715 |

※ 투자항수와 물량은 세부계획수립시 다소 변동될 수 있음

IV. 결론

앞에서도 기술한 바와같이 우리나라 어항개발은 '87년도말 현재 61%의 개발률과 28.8%의 완공률을 보이고 있어 어선의 안전수용에는 아직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이 어항시설의 불비(不備)에 따른 어선피해 다발과 조업능률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어민들의 어항 조기개발 열망은 갈수록 증대되고 소득이나 문화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완벽하고 쾌적한 어항을 바라고 있어 정부에서는 어민들의 숙원을 해소하고 어업의 안정적 기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투자를 확대하여 완공위주의 집중투자로 투자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수산청 관리항인 1·3종 어항은 항별투자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였고, 6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1991년도까지 전어항의 기본시설을 완성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1992년부터는 항별시설소요를 재판단하여 항간 거리를 조정하는 등 부족시설은 중점적으로 확충하고 노후·취락시설은 정비차원에서 개보수하여 2,000년대에는 어항의 수요가 완전히 충족되도록 어항개발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도지사 관리항인 2종 어항은 2001년까지 기본시설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서 국고보조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지방비 확보 확대방안도 강구토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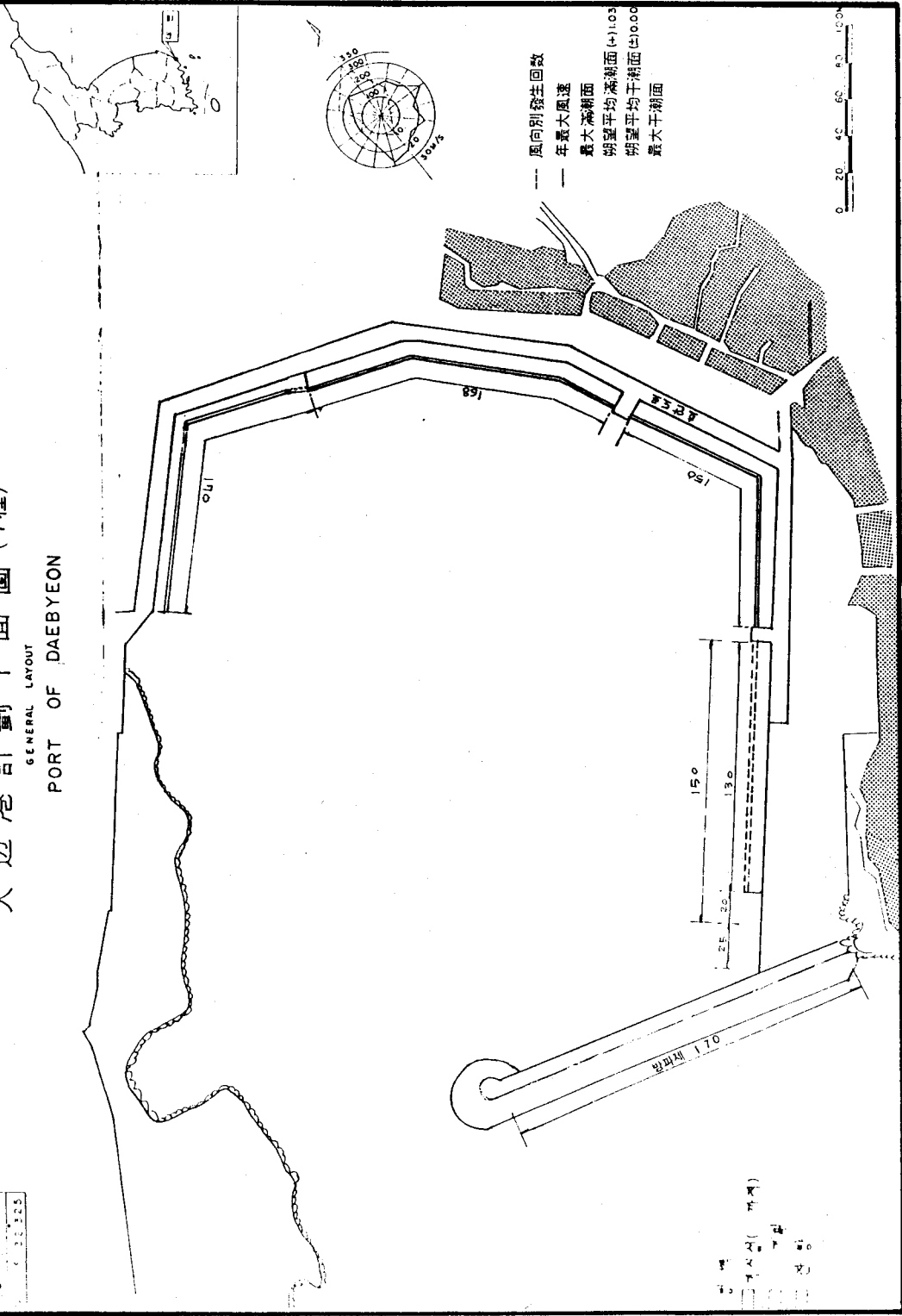
大辺港計劃平面圖 (1種)

GENERAL LAYOUT
PORT OF DAEBYEON

風尚兩道 梁山部 概括面

位置圖

| |
|-------|
| 17C |
| 466 |
| 3332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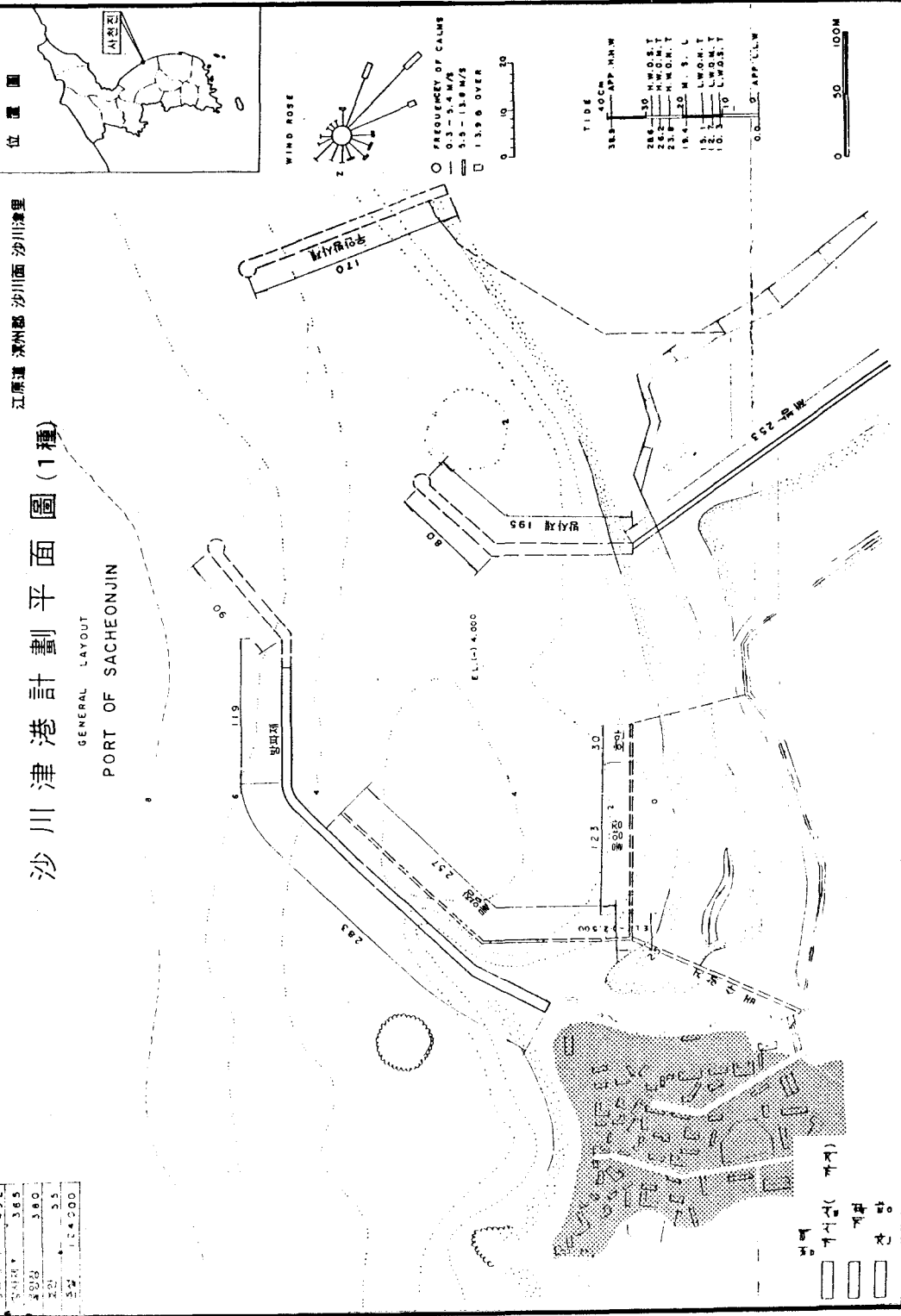


1. 防波堤 (170m)
 2. 突堤 (150m)
 3. 突堤 (130m)
 4. 突堤 (20m)

沙川津港計劃平面圖(1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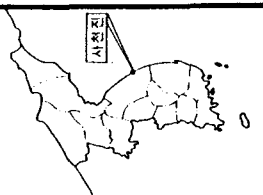
GENERAL LAYOUT
PORT OF SACHEONJIN

江原道 溟州郡 沙川面 沙川津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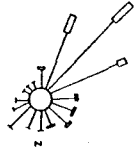


| | |
|---------------------|---------|
| 1. 2. 3. 4. 5. | 492 |
| 6. 7. 8. 9. 10. | 365 |
| 11. 12. 13. 14. 15. | 380 |
| 16. 17. 18. 19. 20. | 35 |
| 21. 22. 23. 24. 25. | 124,2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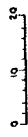
位置圖



WIND ROSE



FREQUENCY OF CALMS
 ○ 0.3 - 5.4 M/S
 ○ 5.5 - 13.8 M/S
 ○ 13.9 & OVER



TIDE



貯存積 (170)
 散存積 (195)
 防波堤